

# UCL 파이널

2

2019년 5월 31일·6월 1일 주말판

스포츠동아 제3095호

## 베팅업계는 “리버풀 우승”

국내 축구팬들의 기대와 예상과는 달리 전 세계 스포츠전문 베팅업계는 리버풀을 UCL 우승팀으로 전망했다. 결승전을 이틀 앞둔 30일(한국시간) 현재, 영국 벳 365는 토트넘의 승리 배당률을 4.33, 리버풀의 배당률을 1.95로 책정하고 있다. 배당률이 더 높다는 말은 우승 확률이 그만큼 적다는 이야기다. 역시 영국을 본거지로 한 윌리엄 힐과 벳 페어도 리버풀의 우승을 점쳤다. 윌리엄 힐은 토트넘과 리버풀의 승리 배당률을 3.2와 1.14로, 벳 페어는 4.0과 1.85로 책정했다. 이밖에 다른 주요 사이트들 역시 리버풀의 우승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다. 토트넘은 도박 전문가들의 예측을 보기 좋게 꺾어볼 수 있을까.

## 토트넘 vs 리버풀 챔스리그 결승전은 ‘지상 최대 돈 잔치’



‘빅 이어’로 불리는 2018~2019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우승 트로피. 토트넘과 리버풀, 결승에서 맞붙은 두 팀 중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팀은 252억 원의 챔피언 상금을 챙기게 된다(왼쪽 사진). 다만 승부로 진행될 6월 2일(한국시간) UCL 결승전이 열릴 원다 메트로폴리타노(가운데 사진). 결전이 펼쳐질 마드리드는 이미 세계 각지에서 찾은 취재진과 축구팬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AP뉴시스·사진제공 |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페이지

# 손흥민의 토트넘, 준우승 해도 1300억 보너스

(상금·수당 약 921억+중계권 배당금 400억 원대)

우승상금 약 252억·준우승 199억  
조별리그부터 엄청난 보너스 확보  
양팀 TV중계권 배당금 400억 넘어

6월 2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원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펼쳐질 토트넘과 리버풀(이상 잉글랜드)의 2018~2019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이하 UCL) 결승은 그야말로 풍성한 ‘돈 잔치’다. 우

승 상금은 1900만 유로(약 252억 원), 준우승 상금도 1500만 유로(약 199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 대회 조별리그부터 4강까지 매 라운드 엄청난 돈이 걸려있다. 일단 조별리그(32강)에 안착하면 기본 상금이 1525만 유로(약 202억 원)가 주어진다. 조별리그에서는 경기별 수당도 별도로 지급됐다. 승리 시 270만 유로(약 36억 원), 무승부 시 90만 유로(약 12억 원)가 책정됐다.

16강에 오르면 950만 유로(약 126억 원), 8강과 4강은 각각 1050만 유로(약 139억 원)와 1200만 유로(약 159억 원)가 걸렸다. 이에 따라 토트넘은 준우승에 그치더라도 6945만 유로(약 921억 원)를 이미 확보했다.

물론 리버풀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다. 준우승으로 대회를 마무리해도 7035만 유로(약 933억 원)를 챙겼다. 토트넘과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은 리버풀의 조

별리그 성적이 좋았기 때문이다. 토트넘은 2승2무2패, 리버풀은 3승3패로 토너먼트라운드에 진입했다.

여기에 두 팀은 TV 중계권료 배당금을 추가로 받는다. UEFA 회원국들의 TV 중계권 시장 가치에 따라 국가별 액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인기도에서도 전체 빅3에 해당된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끝난 2017~2018 UCL 파이널에서 리버풀을 꺾고 정상에 선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는 중계 배당금으로 3100만 유로(약 411억 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버풀과 토트넘도 이에 버금가는 액수를 챙길 전망이다.

2018러시아월드컵에서 우승한 프랑스에 주어질 상금이 3800만 달러(약 450억 원)였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매년 여름 펼쳐지는 UCL 대항전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월드컵보다 우위를 점했다고 볼 수 있다.

마드리드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 ‘빅 이어 트로피’ 높이 73.5cm·무게 7.5kg

### 숫자로 본 UCL 파이널

UCL로 명칭 변경 이후 27번째 대회  
원다 메트로폴리타노 6만3000명 수용  
경기장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만 52대

‘꿈의 무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이하 UCL) 파이널은 많은 것을 품고 있다. 숫자를 통해 2019 UCL 파이널을 돌아보면 적잖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 ●73.5 & 7.5

UCL 우승 트로피의 높이(cm)와 무게(kg)다. 우승컵 좌우의 큰 손잡이가 마치 사람의 귀를 연상케 해 ‘빅 이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UCL 트로피는 1956년부터 수여됐고 현재의 디자인은 1967년 정해졌다. UCL 우승팀에는 복제품이 주어지며 3연패 또는 통산 5회 이상 우승해야만 진품을 영구 소장할 수 있다.

#### ●64 & 27

1955년 처음 시작된 UCL 파이널은 지금까지 64차례 펼쳐졌다. 이 대회는 유러피언컵으로 불리다가 1992년부터 지금의 명칭(UCL)로 바뀌었다. 마드리드에서의 올해 대회 파이널은 통산 64번째이고, UCL 명칭이 바뀐 이후 27번째 펼쳐지는 무대다. 그동안 레알 마드리드가 가장 많은 우승횟수(13회)를 자랑하고, 그 뒤를 7차례 정상에 오른 AC밀란이 따르고 있다.

#### ●63000

UCL 파이널이 펼쳐질 원다 메트로폴리타노의 공식 수용인원이다. 본래는 최대 6만8000명 이상을 채울 수 있지만 오직 UCL 파이널을 위해 5000석을 축소하고, 이 자리에 전 세계의 취재진을 위한 공간을 임시로 마련했다. 토트넘과 리버풀은 전체 입장권 가운데 1만7000장씩 가져갔고, UEFA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 일반 판매는 4000장이다.

#### ●1800

전 세계에서 마드리드를 방문할 방송인력 숫자. 약 200여개의 방송사들이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현장 생중계를 하며 해설위원과 캐스터를 위한 테이블 좌석이 130개 마련됐다. 방송 부스는 추가 비용을 지불할 방송사들에 제공되는데, 그라운드를 바라볼 수 있는 스튜디오는 8개이고, 미디어 트리뷴(취재석)의 외야 스튜디오는 7개가 마련됐다.

#### ●52 & 650

경기 장소인 원다 메트로폴리타노 곳곳에 설치될 카메라는 모두 52대다. 주관방송사에게 이 중 42대의 고품질 카메라를 설치할 권한이 부여됐고 UEFA가 별도로 10대의 대형 카메라를 준비했다. UEFA로부터 취재 승인을 받은 인원은 650명으로 인쇄 및 온라인 매체 기자들과 프리랜서, 사진기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마드리드 | 남정현 기자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NEW IOPE**

STEM III AMPOULE

ALLANTO-LIPOSOME™

78.2%

3hours  
강력한 알란토-리포솜™ 성분으로  
피부가 3시간 더 촉촉한 효과를

IOPE LAB

매일 피부시간을 새롭게  
알란토-리포솜™

| 아이오페 스템III 앰플 |

시간의 한계를 넘어선 발견, 알란토-리포솜™  
매일 3시간 더 촉촉한 새롭히는 피부를 경험하세요

\*만 40대 이상 성인 여성 대상 수면 안면 적용 실험. 2018.11.23~2019.01.16. 피문케어/비파우팅연구소/한국화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

**IOPE**